

##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의 관점에서 본 출산 연기의 맥락과 정책적 제언\*

성미애\*\*·최연실\*\*\*·이재림\*\*\*\*

###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이 어떠한 맥락에서 출산을 연기하며 향후 출산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혼 후 3년이 경과하였고 일시적으로 출산을 연기하고 있다고 보고한 무자녀 기혼 여성 5명과의 심층면접 자료를 주제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이 출산을 연기하는 가장 중요한 사유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외에도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자녀를 대체하는 애완동물의 존재, 그리고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부부 둘만의 생활에 대한 만족 때문에 출산을 연기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출산 연기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꼈다. 출산에 대한 양가부모의 압력에 대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라, 부당한 참견이라고 인식하거나 죄송한 일이라고 인식하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향후 출산 의향은 부모됨에 대한 개인적 태도나 가족의 여건에 따라, 부담스럽지만 출산을 하겠다는 입장과 최대한 출산을 미루겠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저출산 정책은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나 무자녀 가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하며, 미시적으로는 양성평등적 성역할 공유에서부터 거시적으로는 가족친화 사회

\* 본 연구는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NRF-2012S1A5A2A03034353), 2014년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성미애(주저자): 성미애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가족 관련 가치, 가족 및 친족 개념,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 일-가족 양립, 은퇴생활, 비혼 여성, 무자녀 가족 등이다. E-mail: eliza\_s@knou.ac.kr

\*\*\* 최연실: 최연실은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이며, 가족심리와 임상 작업, 가족관계의 내적 역동 분석, 다문화가족, 한국가족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yschoi@smu.ac.kr

\*\*\*\* 이재림(교신저자): 이재림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이며, 연구주제는 세대 간 자원이전(상속, 손자녀 양육지원 등), 청년기 부모-자녀관계, 취업모의 가족과 일 등이다. E-mail: jrlee@snu.ac.kr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지나친 부담에서 벗어나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는 자녀관의 확립이나 공보육 및 공교육 체계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출산을 연기하는 집단과 관련하여 무엇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무자녀 여성, 부모됨 연기, 출산 연기 사유, 향후 출산 의향, 저출산 정책

## I. 문제제기

본 연구는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 기혼 여성이 출산을 연기하는 맥락은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출산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정책에 관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형태의 가족구조를 이루는 삶의 양식이 주류를 이루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족의 다양성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가족학계에서도 다양한 가족 유형의 실재와 정책적 요구도를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 무자녀 가족에 관한 연구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보편적 자녀관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나타난 가족 유형에 관한 연구로, 자녀의 출산이 '당위'가 아니라 '선택'이 되면서 논의가 촉발되었다. 또한 무자녀의 삶은 사회적으로 저출산 현상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삶의 양식과는 별개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연구주제가 되었다.

이렇듯 무자녀의 삶에 관한 연구가 많이 등장하고는 있으나 가족생활 역시 주류의 삶과 비주류의 삶으로 이분화하는 시각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무자녀 가족 내에서 보이는 다양성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무자녀 가족 내 다양성을 인식하고 접근하기보다 무자녀 가족을 단일 범주로 간주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앞서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족학 등 국내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무자녀 가족에 관한 연구들(김정미·양성은, 2013; 이민아, 2013; 이수현, 2012)은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한 무자녀 가족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학계의 흐름으로 인해 자발적 무자녀 가족의 삶이 일반적인 무자녀 가족의 삶을 대표하는 삶의 양식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다. 비자발적 무자녀 가족에 관한 연구(김주희·신혜숙, 2013; 배경의·박춘화, 2007; 황나미, 2013)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연구는 불임 또는 난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부담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점에 차이가 있다. 무자녀 가족이 된 사유에 따라 무자녀 가족의 삶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라고 보고 접근한 연구들(공미혜·이수연, 2012; 김정미·양성은, 2013; 성미애·최연실·이재림, 2014)도 최근 발표되었으나, 무자녀 유형을 주로 자발형과 비자발형으로만 양분하고 연구를 진행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서구의 문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서구의 경우 무자녀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때는 무자녀의 삶을 일탈적인 현상으로 보면서 무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이며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접근하였다(Popenoe, 1936, 1954).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들어와서 무자녀 가족을 대안적 생활양식의 맥락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Nason & Poloma, 1976; Veevers, 1973, 1975, 1980). 이 과정에서 자녀로부터 자유로운 가족(child-free families)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질적 연구도 시도되었다. 1990년대에는 무자녀의 삶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무자녀 가족에 관한 계량적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Bulcroft & Teachman, 2004). 이러한 해외의 연구는 무자녀 가족과 유자녀 가족을 비교한 연구(Dommermuth et al., 2011; Evenson & Simon, 2005; Koropecj-Cox et al., 2007; Pollmann-Schult, 2014; Pudrovska, 2008)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자녀 가족만을 살펴본 경우에는 자발성과 비자발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동성애 커플의 무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연구나 무자녀 남성에 대한 연구(Park, 2005)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자녀 가족을 자발형과 비자발형으로 이분하는 것은 중대한 한계가 있다. 무자녀 가족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큰 출산 연기형 집단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출산 연기형은 자발형이나 비자발형과는 다른 기제가 자녀 출산에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자녀 유형별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및 자녀에 대한 태도를 계량적으로 살펴본 최연실·성미애·이재림(2014a)의 연구에 따르면, 출산 연기형 기혼 남녀의 경우 자발형과 비자발형 기혼 남녀에 비해 부부 간 적응을 잘 하고 있었으며, 별거나 이혼할 가능성도 낮다고 지각하는 등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출산 연기형이 자발형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출산 연기형이 자발형과 비자발형에 비해 자신들의 상황이 열악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의 출산 연기형의 경우 자발형처럼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무자녀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외적 요인에 의해 자녀 출산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본다면, 오늘날 한국에서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 기혼자가 부모됨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최연실 외(2014a)의 연구에서처럼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자들이 경제적 요인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 부모됨을 경험하고자 하는 행복 추구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세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출산하고자 하는 욕구의 지연이 결혼을 한 후에도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면 정책을 통해서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신인철, 2009).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무자녀 가족 유형보다 출산 연기형의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자녀 기혼남녀 중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기혼 여성의 관점과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출산 결정은 부부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일 뿐만 아니라 남성의 쟁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자녀 여성만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Thomson, 1997)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출산을 하는 주체는 여성이고 모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여성들의 관점에서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맥락과 출산 관련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부모 투자 이론(parental investment theory)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무자녀를 덜 원하는 경향이며, 자녀를 출산할지 여부, 그리고 자녀를 언제 임신할지 여부 등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쟁점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한다(Buss, 1999; Geary, 1998). 그러므로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맥락 및 관련된 경험은 여성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 기혼 여성이 어떠한 맥락에서 출산을 연기하는지, 그리고 향후 출산하고자 하는 의향은 어떠한지 이들의 인식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서 저출산 정책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출산 연기형 무자녀 가족의 삶을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저출산 대책을 위한 근거중심적 정책을 개발할 때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연기하는 기혼자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김미정·정계숙·박희경, 2010; 김민주, 2010; 김정석, 2007; 박수미, 2008; 이삼식·윤여원·이지혜, 2012; 정혜은·진미정, 2008). 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을 살펴본 연구(김민주, 2010)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더라도 육아나 가사노동 등 가정 내 돌봄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출산을 기피하는 행위를 선택한다고 한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심층 사례분석(이삼식 외, 2012)에 따르면, 출산을 저하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만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육아 교육 및 체험 부족, 산후우울증, 자녀양육 비용 부담, 자녀양육 비용과 노후준비 간 갈등이 나타났으며, 가족적 요인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가족지원망 약화, 자녀 질병, 주거 부담,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 열악 등이 직장 요인으로는 고용불안정, 경력단절, 육아휴직제도의 불안정성 등이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산모 및 자녀양육 인프라 미흡, 출산·양육 관련 의료 인프라 미흡, 가부장적 지역사회 문화 등이 나타났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사현, 2009)에 따르면, 비정규직·시간제·임시직 등과 같이 불안한 고용상태에 있는 여성의 출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휴가보다 육아휴직이 출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및 기혼 무자녀 남성과 여성의 출산 의사와 미래 예상 출산 자녀수 관련 변수를 탐색한 연구(권영인, 2014)에 따르면, 현재 자녀가 없는 기혼 및 미혼 남녀 모두 우리나라의 여건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에 있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적어도 유아기까지는 부모, 특히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 및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자녀양육 가치관이 실제 예상 자녀수와 유의하게 관련된 변수였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수록 많은 수의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출산 연기나 출산 의도와 관련된 서구의 연구도 유사한 경향이다. 이탈리아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불안정성과 출산 의도를 살펴본 연구(Modena et al., 2013)에 따르면, 여성의 직업 지위가 불안정한 경우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첫째 자녀의 출산을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심리적으로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또는 결혼 초기에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비교적 장기간 임신과 출산을 늦추는 출산 연기형 무자녀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Tanturri & Mencarini, 2008)도 있다. 또한 서구의 경우 출산 연기형은 주로 전문직 여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bma & Martinez, 2006; Hewlett, 2002). 예를 들어 Abma and Martinez(2006)는 미국의 출산 연기형 무자녀에 대해, 여성의 일과 가족이 양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에 치중하면서 부모됨보다 다른 영역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런 연유로 미국의 경우 출산을 가장 많이 연기하는 집단은 백인 여성과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eck et al., 1997; Martin, 2000). 또한 이들 중 일부는 고령 등의 문제로 중국에는 비자발형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편, 무자녀 유형을 자발형, 비자발형, 연기형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및 자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최연실 외(2014a)의 연구에서, 출산 연기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복지 수준은 자발형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그러나 출산 연기형은 세 유형 중에서 부부소득 적정성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자가를 소유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형은 부부관계가 세 유형 중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에 대한 태도는 자발형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연기형 무자녀 가족은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됨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남녀의 인식 및 정책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최연실·성미애·이재림, 2014b)에 따르면, 다수의 출산 연기형 기혼자는 무자녀 상태를 선호하기보다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가족구조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자가 선택한 출산 연기 사유는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자녀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자녀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 ‘소득이 적어서’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출산 연기형 기혼자는 가족정책 중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경감,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 현금지원, 보육비용의 무상지원, 부모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기업 문화 변화, 육아휴직, 양성평등한 가정 문화 조성, 유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혜택 및 주택자금 우대, 불임치료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요구도가 높았다.

### Ⅲ.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 기혼 여성이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 조건은 (1) 결혼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며, (2) 자녀(전 배우자와의 자녀를 포함한 생물학적 자녀, 양자녀, 계자녀, 임신 중인 자녀를 모두 포함)가 한 명도 없고, (3) 자녀 갖기를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4) 50세 미만의 여성이었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온라인 커뮤니티 및 오프라인 소개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심층면접에 참여할 기혼 여성을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여성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참여자 선정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 자녀가 없는 이유를 질문하였으며, 자발형 무자녀(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갖지 않을 예정임) 또는 비자발형 무자녀(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임신이 장기간 되지 않음)와는 달리 ‘당분간 자녀 갖기를 연기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일대일 심층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어떤 주제에 대해 연구 참여자가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참여자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욕구, 태도, 감정 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효선, 2005).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과의 심층면접은 2014년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연구자들의 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참여자에 관계없이 면접 중 비교적 유사한 진술이 반복되는 시점에 면접을 종료하였고, 전체 연구 참여자는 총 5명이었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면접 내용 및 절차, 정보의 보호, 연구 참여의 자발성 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각각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에 앞서 심층면접 가이드를 준비하였으며, 심층면접 가이드에 포함된 반구조화된 질문은 출산을 연기하는 배경, 출산 연기에 대한 주위의 반응, 무자녀 삶의 의미, 자녀의 의미, 결혼의 의미, 향후 출산 의향 및 시기 등에 대한 것이었다. 면접 중에는 심층면접 가이드를 활용하되,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 및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면접 가이드를 유연하게 활용하였다. 모든 면접 내용은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하였으며, 텍스트의 형태로 치밀하게 전사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의 자료수집 절차는 연구책임자가 근무하는 대학교의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접 당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만 32세-40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34.8세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첫 자녀 출산 연령인 30.7세(통계청, 2013)보다 약 4세 정도 높았다. 남편의 평균 연령은 만 36.8세였다. 결혼지속년수는 만 4년-6년이었으며 평균 5년이었고,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대졸이었다. 직업은 면접 당시 전업주부인 경우가 2명, 사회복지사 1명,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1명, 회사원 1명이었다. 즉 다섯 명 중 세 명은 맞벌이 부부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5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였으며, 평균 470만원이었다. 2014년 2분기 2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이 3,040,087원(통계청, 2014)인 것에 비교해 보면, 연구 참여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거주지 소유 형태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3명,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가 2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세 자금이나 자가 구입 자금을 위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분이나 대출금을 매달 상환하거나 전액 상환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 수준이나 자가 소유 비율은 높았지만,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본인 연령 (만)	배우자 연령 (만)	결혼 지속 년수	교육 수준	본인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애완 동물	거주지 형태 및 대출 상환 수준
A	40	40	5	전문대졸	편집 디자이너 → 전업주부	350	없음	자가 (전세자금 대출금, 자가구입 대출금이 많음)
B	30	34	4	대졸	전업주부	400	없음	전세 (부모에게 빌린 전세자금 상환을 위해 적립 중)
C	32	33	4	대졸	사회복지사	600	있음	전세
D	34	39	6	대졸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400	있음	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주택구입비를 매달 용돈 형식으로 드림)
E	38	38	6	대졸	회사원	600	있음	자가

주: 면접 당시의 정보임

### 3. 자료분석

면접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주제 분석법은 특정한 이론적 틀을 따라가기 보다는 질적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Braun and Clarke(2006)이 제시한 주제 분석법의 6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심층면접 자료와 친숙해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전사본을 읽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심층면접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내용을 중심으로 초별 코딩을 실시하였다. (3) 초별 코딩에서 도출된 내용 중 유사한 내용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은 묶으면서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4) 도출된 주제들이 체계적으로 잘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으며, (5) 전체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을 검증한 뒤, (6) 연결되는 주제들의 범주를 구성하여 기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과의 심층면접 자료에서 떠오른 대주제는 출산 연기 사유, 출산 연기에 대한 부정적 시선, 향후 출산 의향의 세 가지였다. 첫 번째 대주제인 ‘출산 연기 사유’의 하위 주제로는 경제적 부담,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자녀를 대체하는 애완동물의 존재, 신혼생활 영위가 도출되었다. 두 번째 대주제인 ‘출산 연기에 대한 부정적 시선’의 하위 주제로는 양가 부모에게 출산을 숨기는 상황, 출산 연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떠올랐다. 세 번째 대주제인 ‘향후 출산 의향’의 하위 주제로는 부담이지만 낳아야 하는 자녀, 부담이어서 피하려고 하는 자녀, 첫 자녀 출산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 도출되었다.

## IV. 연구결과

### 1. 출산 연기 사유

#### 1) 경제적 부담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이 출산을 연기하는 가장 큰 사유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부터 무자녀를 계획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지면 출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 마련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자녀를 출산할 때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저희가 딱히 안 가지려고 한 거보다는 그냥 저희가 그냥 형편이 조금... 남편이 금전적인 게 딱히 없어서 아이를 좀 미뤘던 거거든요. 나이는 좀 있지만 같이 맞벌이를 해야 했어서. 지금은 제가 전업으로 돌아섰는데 그동안은 맞벌이를 했었거든요. (중략) 지금 집이 아무래도 대출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를 갖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략) 처음부터 애기를 갖지 말자 이런 거 아니었으나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대출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지금 서로 ‘아 지금 빨리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게 된 거죠. (A 씨)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출산 및 양육을 경제적 부담과 동일시하였다. 그리고 자녀는 본인 소유의 집에서 경제적 여유를 갖고 안정적으로 키워야 하는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출산을 하고 싶어 하였다.

애를 낳은 사람들 보면, 애 키우는 사람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또 그러고 집도 제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애기가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부터 돈이 들어가서 그런 거를 좀 따지니까 그 키우는데 좀 자신이... (중략) 맨날 돈에 쪼들리고 이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조금 미룬 거 조금 더 미뤄도 상관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C 씨)

여유가 있으면 그 때 낳고 싶어요. 여유가 있고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애기 생각도 들 거 같아요. 어떤 부부들은 오래 살다 보면 심심하다 그러는데 전 아직 그런 건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집이 자가 소유가 아니라 결혼해서 조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집 때문에. 그래서 자가 소유였으면 좋겠다. 내 집, 완전히 내가 마련한 다음에 애기 낳고 살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이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B 씨)

이처럼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데 있어 경제적 이유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낳으면 귀하게 키우고 싶어서 아직까지는 계속 미루고 있고”라는 B 씨의 이야기에서처럼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는 부모가 지원해주는 수준에 따라 자녀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돈 없이 자녀를 갖는 것은 부모로서 떳떳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작용하였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나면 중간 수준 정도의 지원은 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제 주변에서 이번에 마흔 한 살 언니가 애기를 낳았어요. 초산일요. 그런데 자연분만 하고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은 가진 게 엄청 많거든요. 가진 게 많은 사람도 그렇게 미루다 낳는데. 지금 내가 낳아서 출발선이 틀린 거잖아요.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거에 따라서 요즘 애들은 출발선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애를 굳이 이렇게 밑바닥에서 기어서 올라가게 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내가 부모가 되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플 거 같아 가지고. 애한테도 요즘에 돈 없이 애를 낳는 게 죄라고 들었거든요? (연구자: 그런 말에 또 공감하시고.) 네 완전 공감해요. (중략) 최상은 아니더라도 중간은 해주고 싶어요. 최상은 못해줄 거예요. (B 씨)

이런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 B 씨는 “제가 한 4억 가량의 자기 집을 소유하고 차차(自車)가 있다면 애기를 낳을 거예요.”라고 하였고, C 씨는 “저희 부부 명의의 집이 좀 있고.”라고 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집과 차를 소유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면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 2)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가장 큰 사유는 경제적 부담이었으나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도 자녀 출산을 연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로 첫 번째 꼽는 것은 자녀 양육자 및 양육 시설의 부재였으며, 두 번째 요인은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편이었다.

첫째, 출산 이후에도 맞벌이를 계획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양가 부모로부터 양육을 지원받기를 희망하였다. 대기가 긴 어린이집이나 비용이 부담스러운 도우미 등은 안정적인 양육의 대안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가 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지원할 의지가 없거나 양육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할 경우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자녀를 출산하는 데 실제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저희 부모님도 보면 가끔 보는 건 예쁘기는 하지만 키워주실 생각이 있으신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 엄마는 또 일을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맡길 데도 없는 데다가 경제적인 것도 있어서 더 안 낳고 있었던 거죠. (A 씨)

그 어린이집 같은 거를. 아무리 지금 늘어났다고 하고 주변의 친구를 보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상당수예요. 그럼 그 애를 어디다가 맡길 데도 없고. 그러자니 또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는 요즘에 안 봐주시려고 하거든요. 또 도우미를 두자니 돈이 솔직히 버는 거의 반 이상이 나가고. 그런 게 정책이 좀 제대로 잡히면 아마 애를 낳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C 씨)

둘째, 자녀양육을 위해 보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현실 상황에서는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 분위기를 언급하였다. 출산 및 양육과 일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현실적 활용에서 보이는 제한은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현실화하는데 장벽이 된다고 하였다.

육아휴직을 요즘에 쓰라고 한들 좀... 아무래도 여성이 쓰고 나면 다시 이렇게 취업(복직)하기가 좀 어려운... TV에서는 그렇게 해주겠다. 뭐 남편도 한 3개월, 뭐 한 달인가 3개월인가 쓸 수 있다 그렇긴 한데, 솔직히 남자는 거의 쓰는 현실이 아니고요. 여자도 거의 뭐 짧게 쓰면 짧게 썼지, 길게 쓰라고 해도 눈치가 보여서 못나가겠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어요. (C 씨)

한편, E 씨처럼 출산과 경제활동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 출산으로 인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그 일로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출산과 경제활동을 갈등적 구조로 인식하였다. “저의 계획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뭐를 하고 싶고, 돈도 모으고 싶고. (중략) 근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라는 E 씨의 이야기처럼 삶의 계획까지 포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선뜻 선택하기 힘든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였다.

저는 그냥 제가 집에 있는 가정주부로 사는 게 약간 자존감도 좀 있고, 약간 뭔가 성취욕이 좀 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아서 당연히 몇 달간 엄마가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은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지만,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서는 아무래도, 내가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도 우리나라는 여자 나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럼 내가 지금 이 끈을 놓고 잠시 애를 키우면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인정받으면서. 아니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내가 과연 만족할만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을까. (중략) 여태껏 쌓아온 커리어도 있고 그

런 게 (출산으로 인한 공백기가 생긴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요. 저는 제일 큰 걱정이 그거, 일적으로 봤을 때. (E 씨)

셋째,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편도 쉽게 자녀 출산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사유로 작용하였다. 한 가지는 부인에게 가사노동이 집중되면서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육체적 피로는 자녀 출산과 양육을 해야 하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 출산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다른 한 가지는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실망으로 부부관계에 긴장과 갈등 상황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부인은 결혼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자녀 출산을 연기하게 되었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결혼했으니까 서로 36년씩 따로 살았잖아요. 없이 살다보니까 너무 서로의 길이 자기 나름대로 그게 너무 심했고, 배려라는 게 사실 없고, 가정과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중략) 그러다보니까 서로의 갈등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맞벌이 하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중략) 전혀요 전혀 안 도와줬어요. (중략) 늦게 만났으니까 우리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무슨 까딱하면 이혼이 어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건 아닌 거 같다'. (연구자: 그런 것도 자녀를 지금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한) 들었죠. 결정적이죠. (중략) 남편이 못 미덥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믿고 어떻게 애를 낳아가지고 같이. 정말 아무 것도 안 도와주면 나는 정말 정말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때는 정말 일 년은 아이 그런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A 씨)

### 3) 자녀를 대체하는 애완동물의 존재

연구 참여자 중 3명은 개나 고양이를 한 마리 이상 키우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애완동물이 자녀를 대체하는 존재로서 활력의 원천이 되면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감되기도 하였다.

집에 멍멍이가 없었다면 애를 빨리 낳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런 마음이 확실히 있는 거 같고. 저한테도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중략) 그러니까 참 말은 못하는 동물이지만 저희한테 많은 걸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에 대한 필요성? 그런 게 솔직히 반감되

는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저나 남편이나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어머님도 그렇고 애 가지려면 애(강아지) 키우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고 말은 해도 영향은 좀 있는 거 같아요. 없었으면 조금 뭔가 허전하고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없었으면 삶이 좀 허전하고 뭔가 활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텐데 지금 그 역할을 개가 해주고 있으니까 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또 지금 딱 우리 셋이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가정이 또 즐겁고 딱 안정적이니까 더 이상 애기 생각을 못하는 거죠. (E 씨)

연구 참여자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도 자녀를 키우는 수준만큼의 노력이 들어가지만, 인격체인 자녀를 키우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애완동물과 가족 수준의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도 입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인격체를 책임지고 잘 키워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냥 동물을 더 키우면 키웠지 입양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조금 제가 애 키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연구자: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한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내 자식으로 잘 키워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좀 두려운 거 같아요. (중략) 인격체를 이렇게 책임지고 보듬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가. (D 씨)

#### 4) 신혼생활 영위

자녀를 일찍 갖기보다 부부 두 사람만의 신혼생활을 즐기겠다는 생각은 자녀 출산을 연기하게 된 중요한 사유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후 1-2년 정도를 신혼기로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부부 중심으로 보낸 뒤 자녀를 가질 계획을 세웠다고 하였다. “신혼생활은 한 2년간은 있고 싶은 거예요. 재미있게 여행도 가고 밤늦게 맥주도 한 잔 마시고.”라는 E 씨의 이야기는 다른 참여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애초 예상과는 달리 자녀가 없는 삶의 편안함이 주는 매력과 경제적 부담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2년 정도 출산을 연기한다는 계획은 점점 더 미루어져 출산을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부부가) 이제 함께하는 분야가, 좋아하는 게, 여행, 같이 이제 밤에 맥주 한 잔하면서 영화보기. 이런 생활들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주변에 (아이 낳은) 친구들을 보면 개인 삶이 없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저는 약간 마음이 동요가 되는 게 지금 이렇게 편하고, 양육에 들어갈 돈을 여행에,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저금도 할 수 있는데 아기가 생기면 참 빠듯해질 수도 있겠구나.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그런 생활(자녀를 낳고 키우는 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걱정이 되면서도 저도 은근히 미루고 있는. 그리고 남편도 비슷한 거 같아요.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계속 있어요. (E 씨)

## 2. 출산 연기에 대한 부정적 시선

### 1) 양가부모에게 출산 연기를 숨기는 상황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었으나,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보편적 자녀관을 가지고 있는 양가 부모로부터 자녀 출산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연기했다가는 난리난다니 까요. 큰 일 나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숨기고 있는데.”라는 A 씨의 진술처럼 자녀 출산에 대한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출산을 연기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

양가 부모, 특히 시부모의 출산 압력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 유형의 반응은 경제적 부담이 출산 연기의 주된 이유인 만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출산에 대해 압력만 주는 시부모의 말이나 행동을 참견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시댁에) 가기만 하면 애기 낳으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아 낳을 거예요” 하고 오는데 집에 오면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시거든요. 저희 결혼할 때도 저희 힘으로만 했고. (중략) (시부모와 우리 부부는) 서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서로 간섭을 안 하고. 근데 “애기 낳아라 낳아라” 하시면 너무 화가 나요. (B 씨)

양가 부모, 특히 시부모의 출산 압력에 대해서 참견 또는 간섭이라고 보는 입장은 자녀 출산을 철저히 부부의 의사결정 영역으로 보기 때문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러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라는 B 씨의 이야기처럼 출산에 대한 시부모

의 압력을 마음에 두지 않고 흘려버리거나, 남편에게 출산 결정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출산 연기를 지속하였다.

그건 그냥 제 선택이지 그 분들(시부모)이 조부모가 되자고 제가 애를 낳아야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정말 저희 남편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낳자” 해 가지고 낳아서 생기면 모르는데. 전 그냥 임신 했다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무책임하고 바보 같아 보여요. (중략) 오빠가 낳자고 하면 지금이라도 낳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곧 낳을 거라고) 뺨치고 이러면 신랑이 또 받아 줘요. “아유 뭐 집이라도 있어야 낳지 이런 세상에”. (B 씨)

반대로, 양가 부모의 출산 압박에 대한 두 번째 유형의 반응은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양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양가 부모의 출산 압박을 부당한 간섭으로 보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출산 자체는 부부 개인의 의사결정이지만, 자신들의 출산 연기로 인해 양가 부모가 조부모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불효라고 생각하거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애기를 낳으면 이렇게 술 담배 이런 거 안 좋다고, 술 담배를 그렇게 하시는데 끊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셨으면.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지나가시는 말로, 집에 이제 명절 때나 이렇게 가면, 길거리에서 만났던 애기 애기를 하시기도 하고. 너무 예뻐다 말씀을 하시면서 “아유, 우리 손주였으면 어땠을까” 또 우리 명명이를 보고 되게 예뻐하시는데, 재롱 피우면 너무 예뻐하시는데 “애가 우리 손주였으면 얼마나 더 예뻐을까” 뭐 이런 얘기를 돌려서 간접적으로 하세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전 할 말이 없죠. 그냥 웃고만 있죠. 그냥. (E 씨)

양가 부모의 출산 압박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이 혼재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 A 씨는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시부모의 출산 압박은 간섭으로 인식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준 친정 부모의 출산 압박에 대해서는 불효로 인식하는 이원화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집은 다 손자가 있어서 애고 떨고 하는데 손주 하나도 없고 쓸쓸하게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싶으신데. 다른 집 아이들

이 너무 부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효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중략) 본인들(시부모)이 돈을 줄 것도 아니고 애를 키워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부 일에 관여를 하시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참견이 잦아요. 참견 안 해 주셨으면 제일 좋은데. (A 씨)

## 2) 출산 연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연구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무자녀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E 씨는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되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기도 해요 자연스럽게”라고 하였다. 이렇듯 무자녀 부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는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무자녀 부부는 자신의 삶을 더 누리려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거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보는 인식이 남아있다고 지각하였다.

(무자녀 부부는) 그냥 자기 의지로 안 낳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안 낳는 이유는 자기들의 삶을 더 누리려고 그런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B 씨)

가끔씩 이제 안부를 물어보면 “아기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각자의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둘이 무슨 문제가 있나? 부부간의 불임에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고서는. 부부간의 무슨 문제가 있나? 라거나 아니면 불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걱정도 좀 들지만. 그런 것보다 부부간의 무슨 문제가 있나? 사이가 안 좋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은연 중에 얼핏 들어요. 그냥 넘겨지지는 않더라고요. (E 씨)

연구 참여자 중에는 무자녀 부부에 대한 선입견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E 씨는 자신의 경우 자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상황과 무관하게 텔레비전에서 무자녀 부부가 등장하면 왜 자녀가 없는지 의구심부터 들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냐는 생각부터 든다고 하였다.

참 신기한 게 제 스스로는 (자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TV에 가끔씩 보면 다큐 같은 것 보면 부부만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밌게 그것도 좀 이렇게 막 뭐랄까 그냥 딱 보고 ‘아

좋겠다. 편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얘기가 없지? 왜 얘기를 낳을 생각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기하게. (중략) 사실은 부부가 사랑이 되게 많이 없어도 자녀가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도. 그런데 사람이 자녀가 많으면 부부 금실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걸 내가 알면서도. (E 씨)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저출산 현상을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에게 저출산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사회의 태도에 반감을 표현하였다. 출산을 연기하는 것은 개인적 문제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이 문제이기는 한데 그건 사회적 문제이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가 훨씬 크거든요. 사회적 문제 때문에 제가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라는 B 씨의 진술처럼, 자녀를 낳지 않거나 늦게 낳는 한국 사회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출산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국민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출산하지 않는 국민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어떻게 크게 보면 제가 저출산에 한 몫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질타까지 받을 문제인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자녀 가족은 개인의 문제이고, 더 큰 문제로 생기는 게 저출산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나라가 저출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중략) 국가가 해주는 게 그렇게 크게 복지를 해주는 게 아닌데 저출산이라고 국가가 국민들을 비난할 그게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B 씨)

### 3. 향후 출산 의향

#### 1) 부담이지만 낳아야 하는 자녀

연구 참여자의 향후 출산에 대한 의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였다. 향후 자녀를 갖는 것으로 결심한 배경에는 C 씨와 같이 “남편 쪽이 장손이라서” 자녀를 출산해야 하는 경우와 A 씨와 같이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의 기쁨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자녀는 제가 보호하면서 키워서 자기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길잡이 뭐 이런. 그리고 내가 이제 키우는 동안 또 그런 부모로서의 기쁨이 있잖아요. 사소한 거부터 큰 거까지 그런 것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저는 필요한 거 같아요. 내가 부모가 된다는 건 필요한 거 같아요. (A 씨)

이 유형의 연구 참여자들은 신체적으로 일정 연령 이후에는 임신과 출산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자녀를 낳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일부는 35세를 임신과 불임의 경계 연령으로 인식하면서 출산을 연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35세로 보기도 하였다.

지금 서른 세 살이니까 한 서른 다섯까지. (경제적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는데 35세 정도면 노산이라서. 되게 불임이 될까봐 (낳아야 할 것 같아요). (C 씨)

주변에서 하도 겁을 주니까 걱정이 많이 되서 원래는 한 12월부터 임신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몸을 만들고 애기를 가져야 된다. 35세부터는 그런 애기가 너무 많아서 이것 저것 약도 먹고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D 씨)

그러나 자녀를 출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경우에도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실제로 자녀를 출산하는 실천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았다. 현재 자녀가 없는 삶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 때문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없는 부부 중심의 삶이 안정되면서,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과 현 무자녀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자녀 출산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선뜻 실현하기 어려운 부담이고 숙제 같은 일로 인식되었다.

그러니까 아빠 생각하고 이러니까 좀 빨리 낳을 것 그랬다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제가 사실 직접적으로 생활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애기가 없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볼 때는 걱정도 되고 우려하는 것도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되고 생각도 많아지고. (중략) (연구자: 앞으로 임신 시도를 해도 자녀가 안 생긴다면) 초반에는 좀 속상할 거 같고 후회를 할 거 같고요. 그런데 그 마음 다져지게 되면 후련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늘 이게(자녀 출산 이) 지금 숙제로 마음이 무거운 데, 한편으로는 안 생긴다 하면 그러면 확정

이 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노후도 생각할 수 있고 애가 없으니까. (자녀에 대한 갈망은) 한 60% 정도. (D 씨)

참 아이러니한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이 한편으로는 예쁜 아기를 키우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중략) 엄마로서 내 아기를 내 안에 품고 있다 이러면서 아홉 달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런 경험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애를 출산하고 나서의 그런 느낌? 내가 진짜 엄마가 되고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모습?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과 이 현실에 안주함과 이 사이에서 미묘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E 씨)

## 2) 부담이라서 피하려고 하는 자녀

향후 출산에 대한 두 번째 유형은 출산을 부담으로 인식하면서 출산을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기적으로도 자녀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예를 들어 B 씨는 “궁극적으로 보면 저는 낳기도 싫어요.”라고 하면서 자녀 갖는 것을 최대한 미루기를 희망하였다. 첫 번째 유형의 참여자들이 무자녀로서의 삶이 주는 편안함으로 인해 출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연기하고 있었던 것과 유사하게, 두 번째 유형의 참여자들은 자녀가 없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의 출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무자녀의 삶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고, 자녀 없이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있는 주위의 역할모델들을 보면서 자녀가 없는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만나서 모임을 가지면 엄청 이렇게 자신감도 넘치고, 막 그렇거든요, 그 언니가. 그래서 나도 그냥 저렇게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니까 주변에서 그런 걸 봐도, 영향이 조금. (C 씨)

출산을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기적으로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유형의 참여자들은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남편과 타협이 되지 않아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남편은 그냥 빨리 낳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애를 낳거든요, 요즘에요. 지금 한창 나이거든요. 친구들이 다 애를 낳고 돌잔치 가고 그러니까. 하나 낳으면 좋겠다. 나는 싫다. 그렇게 궁핍하게 살면서 애 키우기 싫다. 이려고 있어요. 서로 갈등이 되죠. (B 씨)

### 3) 첫 자녀 출산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

연구 참여자들은 향후 출산 의향에 대해 부담이 되지만 출산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출산을 부담으로 인식하면서 피하고자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미 첫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출산을 현실화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 이런 연유로 “외동은 외롭기 때문에 희망 자녀수는 두 명 정도”라고 한 참여자인 경우에도, 첫 자녀 출산부터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 자녀수를 현실화하기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희망 자녀수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희망’에만 머무르고 있었다. 즉 첫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상황은 이후 출산 계획에 제동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 정도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면 외롭잖아요. (연구자: 낳을 거면 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어우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라도 낳아야 그 답에 생각을 할 텐데. (A 씨)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두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로 인식하였다. 또한 자녀가 두 명일 경우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주변에 보면 두 명을 키우시는 분들은 행복이 없어요. 삶의. 너무 찌들고. 맨날 이렇게 표정도 안 좋고. 자기의 삶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한 명만 잘 키우고 내 생활을 찾고 싶어서. 그리고 노후에도. 이렇게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나중에 노후에는. 지금 저희 엄마 아빠 세대가 그거잖아요 거의. 노후 자금 마련을 못해서 막.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C 씨)

이러한 인식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수록 출산을 결정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E 씨는 연애 때 멋모르고 임신을 했더라면 결혼도 빨리하고 자녀도 낳아서 키웠을 것이라고 하는 등 현실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고려하지 않고 출산을 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늦게 결혼을 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니 자녀 출산도 신중해지면서 출산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애 때 임신을 했더라면 그러면 진짜 결혼도 빨리하고 뭣도 모르고 애도 키웠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무래도 요즘은 연애 때도 이제 많은 관계를 갖잖아요. 근데 결혼해서는 이제 현실이 되니까 결혼이 또 좀 더 신중하게 되고 애 낳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애 갖는 거 자체가 정말. 애를 너무 너무 갖고 싶다고 (배우자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이상은. 근데 연애 때는 진짜 애를 내가 가졌더라면 진짜 뭣도 모르고 당연히 결혼을 빨리 했을 테고 어차피 결혼 할 거니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애를 낳았겠죠? 당연히 애를 키우고. (E 씨)

이런 연유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녀 출산은 자유로운 무자녀의 삶을 끝내야 하는 숙제 같은 결정이라고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미 첫 자녀 출산에서 제동이 걸린 이들에게 있어 자녀 출산은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과업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과업의 범위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사안이 될 것이라는 언급이 종종 나타났다.

하다가 안 되면 저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둘이 살자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중략) 애 있는 게 훨씬 좋죠. (그러나) 저는 절대적인 그런 거는 아니예요. 제가 외골수 스타일은 아니어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냥 그냥 뭐 편안하게 하고 싶지 그거를 막 애써서 노력하고 억지로 만드는 그거는 부자연스러워서. 그리고 싶지는 않죠. (A 씨)

## V. 결론 및 정책적 논의

본 연구는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이 출산을 연기하는 맥락은 어떠한지, 향후 출산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를 이들의 관점에서 탐색하면서 저출산 정책에 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5명의 출산 연기형 무자녀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주제 분석법을 이용하여 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 출산 연기 사유, (2) 출산 연기에 대한 부정적 시선, (3) 향후 출산 의향이 라는 세 가지 대주제가 도출되었으며, 각 대주제에 대해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이 출산을 연기하는 주된 사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은 자녀 출산 및 양육을 경제적 부담과 동일시하며,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을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선행연구(Pollmann-Schult, 2014)에서 자녀는 긍정적인 존재이며, 삶의 계획에 포함된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영향력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지출되는 재정적 비용과 시간 비용에 의해 상쇄된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이유 외에도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출산 연기의 중요한 사유로 작용한다.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 자녀를 양육해 줄 사람이나 양육시설이 없다는 우려와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그 내용이다. 그리고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편의 존재는 부부 간 갈등과 결혼 자체의 안정성을 저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출산 연기 사유로 작용한다. 그리고 애완동물이 자녀 대신 부부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감시킨다. 또한 자녀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무자녀로서의 삶에 편안함을 느끼면서, 부부만의 신혼생활을 즐기는 기간이 결혼 초기 계획보다 연장되고 자녀 출산 결정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출산이 늦어지는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지 않다. 서구에서 무자녀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Modena et al., 2013), 일-가족 양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에 치중하면서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등 부모됨보다 다른 영역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Abma & Martinez, 2006),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부부 두 사람만의 삶을 일정 시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Tanturri & Mencarini, 2008)와 같은 사유가 지적된 것과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남편의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참여는 실제 기혼 여성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부부 간 갈등의 요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혼 여성이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적 영역에서 여성 참여와 지위상승 속도에 비해 지연되는 가족 내 성별 분업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이중부담과 돌봄의 공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본 선행연구의 결과(신경아, 2010; 황정미, 2005)를 뒷받침한다. 한편, 애완동물의 존재는 수의학 분야에서 보건과 치료 측면에서 연구되던 주제였으나 최근 관계나 인간발달과 관련해서 새롭게 주목되는 출산 연기의 사유이다. 양로원 소재 노인을 대상으로 애완견이 갖는 매개활동을 살펴본 연구(신에스터·이성국, 2010)에 따르면, 애완견은 노인들의 자기존중감이나 우울 및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애완동물은 무자녀 부부에게 자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측면에서는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기혼 자녀가 출산을 연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양가 부모의 시선은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에게 출산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스러운 시선에 대해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은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즉 부당한 참견으로 보거나 불효 또는 죄송스러운 일로 보는데, 이렇게 인식이 나누어지는 이유에는 결혼 과정이나 양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무자녀 가족에 대한 외부 시선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무자녀 부부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부정적이라고 인식한다. 즉 무자녀 부부는 자신의 삶을 더 누리려고 하는 존재, 또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등 무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본다고 지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무자녀의 삶을 대안적 생활양식의 맥락에서 보지 않고 일탈적인 현상으로 다루었던 과거의 시각(Popenoe, 1936, 1954)이 어느 정도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 역시 자녀가 없는 자신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런 부정적인 외부자의 시선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가 변화되어 출산을 연기하는 것보다는 상황적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미혼남녀와 기혼부부들이 개인적인 선호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며 출산을 결정하며, 출산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송유미·이제상, 2011). 그러나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은 이렇게 출산 문제를 부부 개인의 문제로 보면서도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 부모가 조부모세대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자녀 출산은 부부의 의사결정 영역에 속한다는 생각과 부모의 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상황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불효’라는 인식에서부터 ‘무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양가 부모의 자녀 출산에 대한 압력이 직접적으로 자녀세대의 출산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자녀 출산에 대한 외적 압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진다(Abma & Martinez, 2006; Veevers, 1980)는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이 현재는 단순히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출산의 ‘마지노선인 35세’ 등과 같은 기점 이후로는 장기적으로 자녀가 없는 자발적 무자녀의

삶을 선택하거나, 노화의 결과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어려워지면서 비자발적으로 무자녀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의 향후 출산 의향은 가족의 상황이나 부모됨에 대한 개인의 의지에 따라 머지않은 미래에는 자녀를 갖겠다는 유형과 앞으로도 최대한 출산을 연기하거나 무자녀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미 첫 자녀 출산을 연기한 상황은 향후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실제로 출산할 자녀수가 줄어들게 되며, 심지어는 현재 무자녀의 삶이 주는 시간적 자유로움과 경제적 여유로 인해 자녀 출산은 '부담'이고 '숙제' 같은 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출산 결정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수록 실현하기 어려운 계획이 되며, 결국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에게 자녀 출산은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선택해야 하는 발달과업의 범위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숙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저출산은 여성의 적응 행동이라는 주장(신경아, 2010)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 2. 정책적 제언

이상과 같은 결론에 근거해서 저출산 정책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 정책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정책을 통해 예비부부나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 정책의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거의 안정성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혼인기간은 5년으로 한정하되 자녀의 존재 여부나 임신 여부를 지원대상 선정조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가 소유는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에게 단순한 경제적 재화가 아니라 자녀를 안정된 환경 속에서 키울 수 있는 물리적 토대, 즉 출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신혼부부가 살 집을 마련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신혼주택 공급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현재 저출산 정책은 다자녀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을 택하고 있는데, 이 방향을 선회해서 첫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출산 연기형 무자녀 여성의 경우 결혼 후 1-2년

내에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일-가족 균형 정책이 현실감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자녀의 삶이 주는 자유로움과 여유가 작용하면서 자발적, 비자발적 무자녀 가족이 될 개연성이 크다. 이처럼 첫 자녀 출산의 연기는 이후 희망 자녀수를 현실화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첫 자녀 출산 여부나 시기가 전반적인 출산 계획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출산 정책의 기초는 다자녀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첫 자녀를 출산하는 데 용이하도록 기획되어야 하며, 첫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수준에서 자녀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이 가족 수준의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애완동물을 양육하면서 자녀 양육과 유사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지만 입양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자녀라는 인격체를 책임감 있게 잘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물리적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자녀를 한 인격체로 잘 키워야 한다는 것에도 부담이 큼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인프라의 내실화와 함께 사회적으로 자녀관에 대한 변화도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자녀를 소유한다는 태도나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인정하면서 느슨하면서도 친밀한 유대를 갖도록 하는 자녀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의 경쟁 구조나 시스템에 대한 성찰도 자녀에 관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식과 인성, 시민의식, 생활능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보육이나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며, 보육 및 교육이 갖는 공공성과 사회통합적 기능을 인식하여 사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공급자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자녀의 출산, 양육, 교육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한 방법임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 2013).

넷째, 자녀를 낳지 않더라도 결혼 후 빠른 시간 안에 출산 및 양육 관련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 중 일부는 일찍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였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한다는 보편적 출산관에서 벗어나 현재 출산을 연기한 이들은 자녀를 낳으면 잘 키워야 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안정된 주거 공간도 필요하며, 직업적 성취에서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다보니 섣불리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출산은 항상 숙제로 느껴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무자녀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자녀를 갖게 되는 이점에 대한 인식도 감소시키기 때문에(Taris, 1998), 출산 연기형의 경우에도 자발적 무자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미국 가족 및 가구 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Heaton, Jacobson, & Holland, 1999)에 따르면, 생물학적 과정과 무자녀의 편한 생활양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출산 연기가 늘어날수록 출산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한다. 결국 출산을 연기하고 자녀가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 자녀 출산은 그만큼 덜 매력적인 삶의 선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 후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들이 미시적인 가정생활에서의 양성평등한 성역할 공유에서부터 거시적 수준에서의 가족친화적 제도 및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를 양성평등하게 만들어야 하며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개발 및 보급하고 활용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과 배우자의 경우 ‘여성의 출산=퇴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부담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출산이 일-가족 균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편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녀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을 연기하는 맥락과 향후 출산 관련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자녀 출산 영역에서는 여성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므로 부모됨을 연기하는 맥락과 관련 인식을 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녀 출산은 배우자와 함께 결정되는 부분이며, 실제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출산을 연기하는 사유와 향후 출산 의지 등을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됨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실제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무자녀 기혼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여주었으며, 저출산 정책을 계획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공미혜·이수연. 2012. “무자녀 부부의 결혼생활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2): 23-44.
- 권영인. 2014. “미혼 및 기혼 무자녀 남성과 여성의 출산 의사 고찰과 미래 예상 출산 자녀수 관련 변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251-268.
- 김미정·정계숙·박희경. 2011. “20-30대 유자녀 모의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0(4): 1-18.
- 김민주. 2010. “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9(2): 105-129.
- 김사현. 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36(2): 113-137.
- 김정미·양성은. 2013.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선택 동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79-95.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김주희·신혜숙. 2013. “불임 여성의 삶의 질 모형 구축.”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3): 312-320.
- 배경의·박춘화. 2007. “불임여성의 인공수정 경험.” 『질적연구』 8(2): 23-35.
- 박수미. 2008. “저출산과 돌봄노동.” 『젠더연구』 13: 53-63.
- 성미애·최연실·이재림. 2014. “한국 무자녀 부부의 초상 II : 자발형과 비자발형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 예측 요인 탐색” 『가족과 문화』 26(1): 72-101.
- 송유미·이제상. 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27-61.
- 신경아. 2010.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여성 없는 여성정책.” 『페미니즘연구』 10(1): 89-122.
- 신에스더·이성국. 2010. “애완견 매개활동이 노인의 자기존중감, 우울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농촌의학 지역보건』 35(3): 314-325.
- 신인철. 2009. “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공간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2(2): 59-85.
- 이민아. 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사회학』 47(2): 143-176.
- 이삼식·윤여원·이지혜. 201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서울: 보건복지부.

- 이수현. 2012.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2(3): 43-88.
- 이효선. 2005. 『질적연구: 해석과 이해』. 서울: 학현사.
- 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 2013.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혜은·진미정.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51-168.
- 최연실·성미애·이재림. 2014a. “한국 무자녀 부부의 초상 I : 무자녀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및 자녀에 대한 태도.” 『가족과 문화』 26(1): 40-71.
- \_\_\_\_\_. 2014b.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자의 출산 연기 동기와 정책적 요구 탐색.”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10주년 기념 2014 통합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가정관리학회 포스터 발표): 260.
- 통계청. 201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통계청. 2014.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황나미. 2013. “난임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3(3): 161-187.
- Abma, J. C., and G. M. Martinez. 2006. “Childlessness among Older Women in the United States: Trends and Profi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1045-1056.
- Braun, V., and V. Clarke.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 Bulcroft, R., and J. Teachman. 2004. “Ambiguous Constructions: Development of a Childless or Child-Free Life Course.” pp. 116-135 in M. Coleman and L. H. Ganong (Eds.). *Handbook of Contemporary Families: Considering the Past, Contemplating the Future*. Thousand Oaks, CA: Sage.
- Buss, D. M. 1999. *Evolutionary Psychology: The New Science of the Mind*. Boston: Allyn & Bacon.
- Dommermuth, L., J. Klobas, and T. Lappegard. 2011. “Now or Later?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iming of Fertility Intention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6: 42-53.
- Evenson, R. J. and R. Simon. 2005.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hood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 341-358.

- Geary, D. C. 1998. *Male, Female: The Evolution of Human Sex Differences.*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aton, T., C. K. Jacobson, and K. Holland. 1999. "Persistence and Change in Decisions to Remain Childl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531-539.
- Heck, K. E., K. C. Schoendorf., S. J. Ventura, and J. L. Kiely. 1997. "Delayed Childbearing by Education Level in the United States, 1969 - 1994."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1: 81-88.
- Hewlett, S. A. 2002. *Creating a Life: Professional Women and the Quest for Children.* New York: Talk Miramax Books.
- Koropeckyj-Cox, T., A. M. Pienta, and T. H. Brown. 2007. "Women of the 1950s and the 'Normative' Life Course: The Implications of Childlessness, Fertility Timing, and Marital Statu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in Late Mid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4: 299-330.
- Martin, S. 2000. "Diverging Fertility among U.S. Women Who Delay Childbearing." *Demography* 37: 523-533.
- Modena, F., C. Rondinelli, and F. Sabatini. 2013. "Economic Insecurity and Fertility Intentions: The Case of Ital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0: 1-273.
- Nason, E., and M. Poloma. 1976. *Voluntarily Childless Couples: The Emergence of a Variant Lifestyle.* Beverly Hills, CA: Sage.
- Park, K. 2005. "Choosing Childlessness: Weber's Typology of Action and Motives of the Voluntarily Childless." *Sociological Inquiry* 75: 372-402.
- Pollmann-Schult, M. 2014. "Parenthood and Life Satisfaction: Why Don't Children Make People Happ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6: 319-336.
- Popenoe, P. 1936. "Motivation of Childless Marriage." *Journal of Heredity* 27: 467-472.
- Popenoe, P. 1954. "The Childless Marriage: Sexual and Marital Maladjustments." *Fertility and Sterility* 5: 168-172.
- Pudrovska, T. 2008.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Motherhood and Fatherhood in Midlife: Evidence from Sibling Model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 168-181.
- Tanturri, M. L., and L. Mencarini. 2008. "Childless or Childfree? Paths to Voluntary Childlessness in Ital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4: 51-77.

- Taris, T. W. 1998. "Fertility in the Netherlands as an Expected Value Process and Developmental Readiness." *Journal of Psychology* 132: 61-77.
- Thomson, E. 1997. "Couple Childbearing Desire, Intentions, and Birth." *Demography* 34: 343-354.
- Veevers, J. E. 1973. "Voluntarily Childless Wives: an Exploratory Study."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57: 356-366.
- Veevers, J. E. 1975. "The Moral Career of Voluntarily Childless Wives: Notes on the Defence of a Variant World View." *Family Coordinator* 24: 473-487.
- Veevers, J. E. 1980. *Childless by Choice.* Toronto: Butterworth.

(2015. 01. 27. 접수, 2015. 02. 06. 심사, 2015. 03. 18. 채택)

## Abstract

### Context of delayed parenthood among childless married women: implications for fertility policies

*Miai Su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Younshil Choi, Sangmyung University*

*Jaerim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ontext of childless married women who decided to postpone parenthood and their perceptions of having a child in the future. We also aim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ies in response to the low fertility rate in Korea.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childless women who had been married for over three years, who reported that they were temporarily postponing parenthood, and who were younger than 50 years old. Three major themes emerged from our thematic analysis: (a) reasons for postponing parenthood, (b) others' negative perspectives of postponing parenthood, and (c) intentions to have a child in the future.

Economic pressure was the key reason they gave for postponing parenthood. The participants thought that childbirth and childrearing would be an economic burden and that properly raising a child meant providing the child with sufficient economic resources. They also postponed parenthood because they believed it would create challenges including juggling between work and child care due to a lack of satisfactory child care support, a possible career interruption, and a lack of shared housework support from their husbands. Other important reasons were having a pet that substituted for a child or feeling comfortable with a childless life style.

Other people's negative perspectives of postponing parenthood put considerable pressure on the participants. The women felt uncomfortable with their parents' or parents-in-law's attitudes if they did not agree with the women's decision to postpone parenthood. Some participants thought that their decision to delay parenthood was the couple's own business, while others perceived that it was a choice a filial daughter or daughter-in-law should not choose. Economic support from the parents or parents-in-law contributed to these contradictory perceptions. The participants thought the overall societal perceptions of childless couples who postponed parenthood were still negative in Korea

despite recent changes.

The participants' intentions to have a child varied depending upon their family circumstances and their attitudes toward parenthood. Some women planned to become a mother in the near future while others wanted to postpone parenthood as long as possible or considered remaining childless.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s, all of the women perceived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s a "burden" or "assignment" as compared to their childless lives that they characterized as having sufficient free time and economic resourc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suggest that public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rates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premarital couples and childless married couples rather than exclusively supporting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At the micro level, it would be crucial to infuse egalitarian gender roles among couples and to reform Koreans' attitudes toward children so they can view children as independent human beings rather than putting a heavy emphasis on parental roles and investments. At the macro level, public policies need to focus on building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s as well as strong public child care and education in order to remove societal barriers for parenthood.

Key Words: childless women, delayed parenthood, reasons for postponing parenthood, intension to have a child, fertility policy.